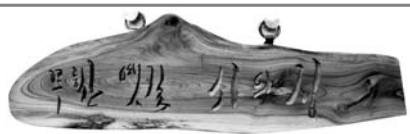


문화

“잠시 걸음 멈추고 詩 한편 보고 가시죠”



■무등산 옛길 초입 '詩의 집' 개관

문화이 시들어가는 시대, 여유있 이 바쁜 움직이는 바람에 많은 이 들이 '시(詩)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. 더욱이 가슴 뜨거운 청춘들은 입시와 취업에 휘둘러 시의 감동엔 관심 없는 것 같다. 그러나 다행인 것은 누군가는 여전히 시를 사랑한 다는 것. 최근 중년을 중심으로 시 낭송 열풍이 일고, 시 관련 강좌와 인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.

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옛길 초 입에 시를 친근하게 느끼고 시를 즐 길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 문 을 열었다.

광주시 동구 산수동 43-1번지 무 등산 옛길 시(詩)의 집. 지난 달 동 지를 틔이 곳은 무등산 옛길 1구간 시작점으로 시암송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문길섭(57·드림 아트홀 관장)씨가 비어있던 집을 개조해 꾸민 공간이다.

암송하는 시가 1000여 편이 넘을 정도로 시에 열정적인 문씨는 이해 인 수녀가 어떤 글에서 “나는 시의 집을 갖고 싶다”라고 언급한 점에 착안해, 시의 집을 구상했다고 말했 다.

시의 집을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그리 큰 돈이 들지는 않았다. 보증 금 200만원에 월세 12만원(2년 계 약)으로 좋은 목을 차지한 셈이다.

33㎡(10여 평)의 좁은 공간이지만 시와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마련돼 있다.

실내(작은 방 3개)에는 신경숙, 김용택, 강금실 등 문씨가 신중히 가려뽑은 명사들의 시 사랑 고백 글 구를 담은 23개의 판넬을 걸었고, 각 방마다 책상과 의자를 두고 시 관련 서적을 비치해 시의 감동을 느 낄 수 있도록 했다.

개관과 동시에 골목 길 우측 담장 에 전시한 시들은 무등산 옛길의 새 로운 명물이 되고 있다.

탐방객들이 무등산을 오르며 관 랑할 수 있도록 짧고 감동적인 시 20여 편을 전시했다. 시와 가까이 접하고 스쳐가면서도 한 구절 정도 음미해보라는 의도에서다.

문씨는 “이번 담장 시 전시는 시 인은 아니지만 자신이 구상한 시를 암송할 줄 아는 집주인 송옥자씨의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”고 밝혔다.

문씨가 이 공간을 만들면서 특히 신경 쓴 것은 ‘좋은 시 암송하기’이다. 이는 2006년 시암송국민운동부 투를 만들어 “명시 50편 정도는 암 송하자”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진 행했던 ‘시 카드 보급 운동’의 일환 이기도 하다.

시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암송하 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를 즐기게 된다는



무등산 옛길 1구간 초입에 문을 연 詩의 집은 시와 관련한 명구와 암송하기 쉬운 시를 전시해 탐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빈집 개조해 시를 위한 공간 마련... 시 암송·창작 소모임 구상

것이 그의 생각이다. 문씨는 시의 집이 제모습을 갖추 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게 많다고 말한다.

우선 시 관련 서적을 충분히 확보 하는 게 급선무다. 이와 관련 시 전 문 작은도서관을 구상하고 있다. 시 와 시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출간 시집들을 한데 모아 이곳을 찾는 이 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다.

시 카드 보급사업도 계속할 계획 이다. 조만간 시 카드 개정판을 만

들고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도 보급 할 예정이다.

이외에도 무등산과 탐방과 연계 한 시 문화 견학, 암송경연대회, 시 창작 소모임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.

문씨는 “새등지처럼 작은 공간이 지만 시를 가까이 느끼고, 시를 사 랑하며 시를 즐기면(외우)는 아름 다운 시대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”고 말했다.

소설 '25시'의 작가 게오르규가 광주를 찾아 ‘광주는 시의 도시’

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 했다는 문씨는 “이곳도 광주를 찾 는 외지인에게 ‘광주시민은 시를 사 랑하는 시민이구나’하는 첫인상을 심어주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
장흥 출생인 문씨는 2001년 월간 ‘아동문학’에 동시로 등단했으며, 광주빛고을노년건강타운과 서구문 화원 등에서 시 낭송과 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. 문의 062-676-9485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이용우·김선정씨 등 광주비엔날레 전·현직 7명 구겐하임 아시아예술위원회에 선정

광주비엔날레 재단(이하 재단) 이 용우 대표이사와 김선정 공동감독 등 재단의 전·현직 인사 7명이 세계 최 고 미술관 중 하나인 구겐하임의 아 시아예술위원회(Asian art council) 위원으로 선정됐다.

또 김홍남 이화여대 교수(전 재단 이사), 제4회광주비엔날레 공동큐레 이터 후한우, 제7회 광주비엔날레 공동큐레이터 랜지트 호스코데, 제8회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패트 릭 플로레스도 함께 뽑혔다.

이 위원회는 아시아 관련 미술 정책 을 수립하고, 전시 기획 등을 자문하 는 역할을 한다. 또 구겐하임의 아시 아 지역 분관 설립과 관련, 후보지를 물색하고 조언하는 역할도 맡는다.

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며, 미국 내 아시아지역 미술 전문가와 동경 미술



이용우 대표이사 김선정 공동감독



김홍남 전 이사

관 유코 하세가와 수석 큐레이터 등 이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. 또 아시아예술 위원회 위원 19명 중 한국인은 3명 인데, 모두 재단 의 전·현직 인사들이 뽑혔다. 한편 이 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 첫 회의를 시 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음악이 흐르는 장미정원에 무슨 일이

김찬경 개인전, 17일까지 무등갤러리

‘음악의 여신으로 자라난 로즈 아 이들이 장미정원의 아름다움을 음악 으로 다스린다’는 동화같은 이야기가 화폭에 담겼다.

바이올리니스트 김찬경씨가 조선 대 장미정원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‘그림동화 장미정원’을 화사한 그림 으로 그려 첫 전시회를 연다.

‘음악이 흐르는 김찬경의 장미정 원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무등갤러리(11~17일), 문화갤러리 (19~26일),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문화센터(27일~9월 10일)에 서 잇따라 열린다.

화사한 색으로 ‘그림동화 장미정 원’의 내용 속 장면을 형상화했으며, 장미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조화 를 이룬 작품이다.

또 각 작품에 맞는 음악을 선정해, 전시장에서 들려지기 때문에 음악과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.

전남대 사범대 음악교육과를 졸업 한 뒤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으 로 활동하고 있다. 서울시립교향악단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설치 작 업 을 펼치고 있다. 문의 062-236-2520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

주영남 작 '살 속에서의 고독들'

“지역 미술인들 모두 모여”

‘원봉화’ 초대전, 21일까지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

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9~ 21일 지역 미술단체인 ‘원봉화’(회장 주영남)의 초대전을 연다.

이번 전시에는 강남구·김기찬·김 상욱·김진근·김홍우·류재용·문정 호·서재경·양갑수·오병환·오창록· 오혜경·유진수·이선복·정광일·정현 숙씨 등이 참여한다.

이들은 ‘세월에게 묻다’를 주제로

서양화, 한국화, 서예, 문인화, 조각 등을 선보인다. 또 전시 기간에는 초· 중·고교 학생들을 위한 도예체험 프 로그램도 진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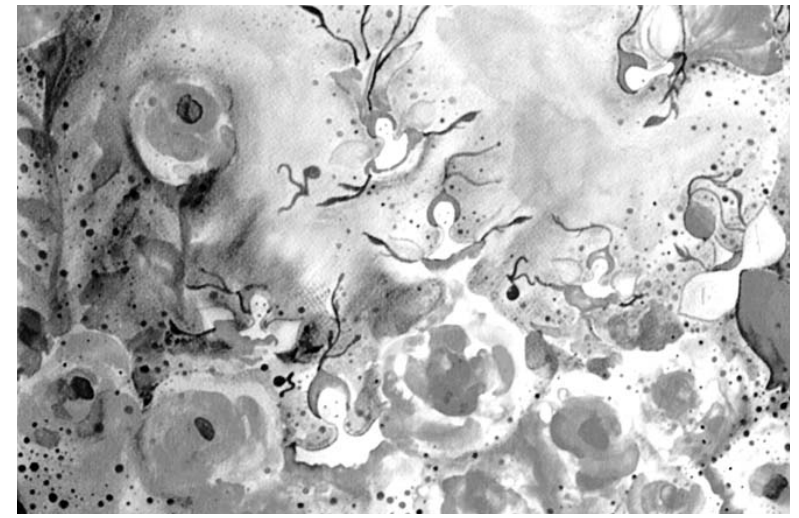
한편 지난 2001년 결성된 ‘원봉화’ 는 당시 원봉갤러리에서 열린 ‘남도 청년작가전’에 초대된 작가들이 중심 이 된 미술 단체다. 문의 062-613-5391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국립남도국악원 단원 모집

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연주단 단원 7명을 모집한다.

이번 공모에서는 피리 전공자 2명 과 사물 전공자 3명 등 기악단 단원 5 명과 무용단 2명을 선별한다.

만 2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면 지 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11일부터 16 일까지이다. 공개 전형일시는 18일 오전 10시이며 합격자 발표는 22일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(www.namdo.go.kr)를 통해 공고한다. 문의 061-540-4031. /김미연기자 mekim@



‘천국의 소리’

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since 2005,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. Includes contact info: 062-236-3400.

Advertisement for Shinjin Gongin Jungsaga (신진공인중개사),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: 016-644-4265.

Advertisement for Giljam Gongin Jungsaga (길잡이공인중개사), listing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: 011-602-3960.

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Budeungsan (대인동삼일부동산), listing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: (FAX) 223-1772.